

세계 양계산업의 흐름과 전망

세계 인구변화 양계산업 흐름 바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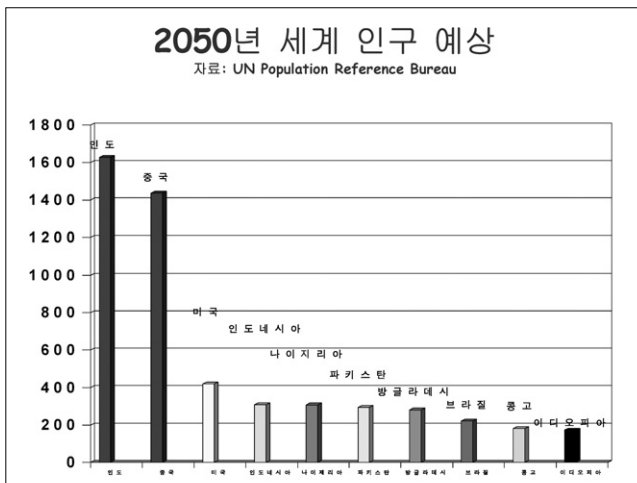
지난 2003년부터 맹위를 떨치며 국내외를 뒤흔들어 놓았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도 당시보다는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든 느낌이지만 아직도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일로에 있으며, 비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2007년 3월 협상 타결을 목표로 진행중에 있는 한미 FTA협상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된 이후 세계적인 경향(Trand)으로 흐르면서 양계인을 비롯한 농업관련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진행은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양계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을 분석해보고 앞으로의 양계산업의 앞날을 가름해보고자 한다.

1. 인구의 변화와 양계산업 흐름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선진국들은 저출산율로 인해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2007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이면서 더 이상의 양계산물 소비증가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인구는 양계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2004년 현재 지구의 인구는 64억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는 지난 1800년대 10억이었던 전세계 인구가 1960년대에 30억에 도달하였고, 1999년에 60억을 넘겼다.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47억으로 전체의 59%, 아프리카가 13억으로 17%, 유럽과 라틴아메리카가 7억과 6억8천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2004년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13억명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가 10억명으로 뒤를 바짝 쫓고 있다. 하지만 UN인구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45년 뒤인 2050년에는 인도가 16억명으로 중국의 14억명을 따라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현재 닭고기 소비량이



1kg에 못 미치고 계란 40여개를 먹는 인도의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제로 1990년대 초 20여개에 머물던 1인당 계란소비량이 15년 동안 2배로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주목되는 대목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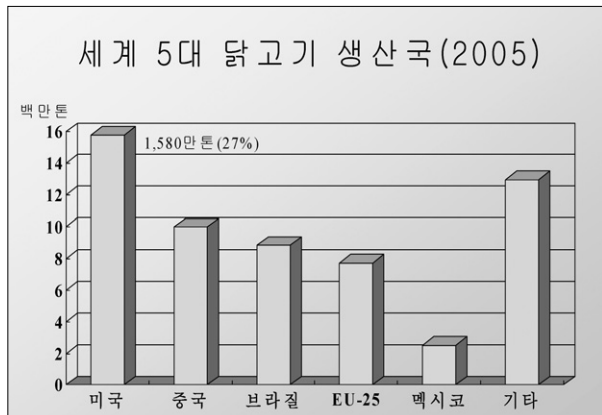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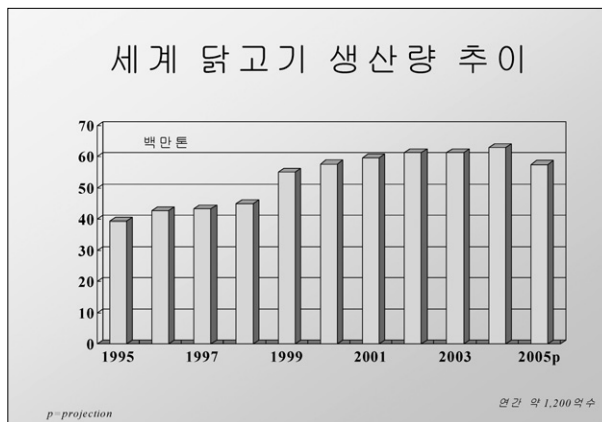
2. 세계 양계산물 생산 추이

세계 양계산업은 최근 들면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003년 고

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체적인 양계산물의 생산량은 줄어들었지만 2006년을 기점으로 다시 생산량과 소비량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육계산업 현황

2005년도 전세계 육계생산량은 5,748만 톤으로 2004년에 비해 줄어들었지만 소비량이 다시 살아나면서 금년부터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닭고기 무역량도 해마다 늘어나면서 2004년에는 690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0%가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005년에는 HPAI의 영향으로 수출입이 다소 주춤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닭고기 생산을 가장 많이하는 나라는 역시 미국으로 1년에 1,200만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26%에 해당한다. 뒤이어 중국(999만톤), 브라질(883만톤), EU-25국(772만톤), 멕시코(252만톤), 기타(1,295만톤)를 생산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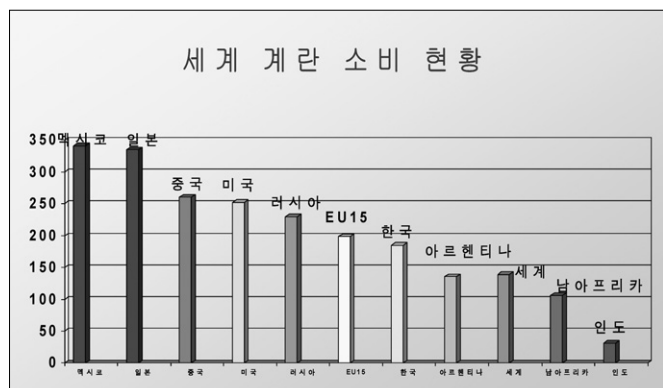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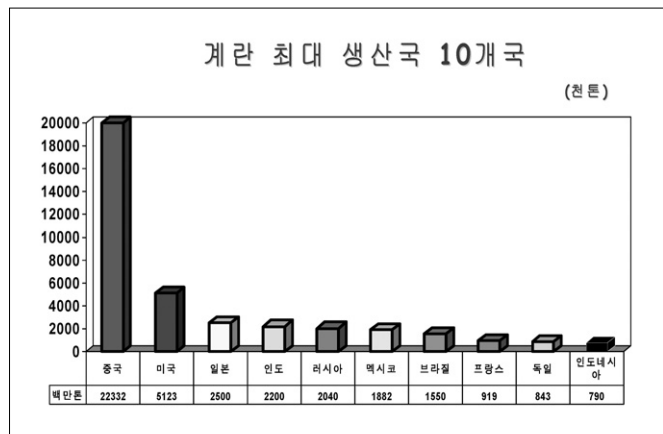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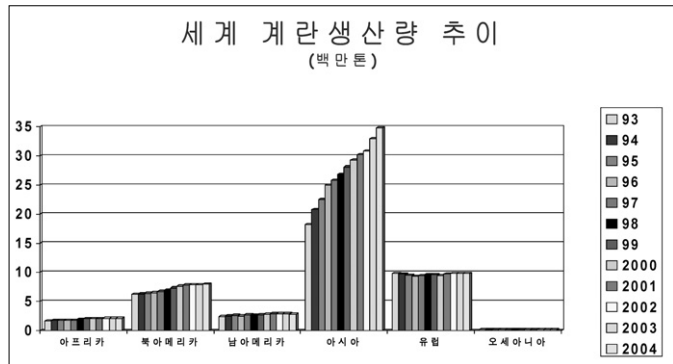
다. 최근 들면서 남미 브라질의 급성
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 채란업 현황

계란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에
5,790만톤을 생산하였다. 이는 역시
2002년(5,500만톤), 2003년(5,620
만톤)과 비교해 볼 때 꾸준히 늘어나
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HPAI의
영향을 받아 2005년에는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역적으로 보면 아시아가 3,300만톤으로
전세계 생산량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유럽과 북중미가 980만톤과 790만톤으로 각각 17%와
14%를 보여주고 있다. 1993년부터 10여년간 조사한 세계 계란생산추이를 보면 아프리카와 남미는 그
생산량이 큰 변화가 없는 반면 북중미
와 아시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는데, 특히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
장 성장이 빠르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반면 유럽은
동물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오는 2012
년까지 케이지 사육이 금지되기 때문
에 사육수수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계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중국으로
2,400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529만톤, 9%),
일본(247만톤), 러시아연합(199만톤),
인도(189만톤)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
다.

3) 양계산물 소비량

2004년 1인당 계란소비량은 멕시코
가 147개로 일본 330개와 대만 329개
를 크게 앞지르고 있으며, 닭고기(가





금육 포함)의 경우 아랍에미리트가 77kg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홍콩(66.4kg), 이스라엘(64.3kg), 카타르(61.2kg), 미국(54.1kg)순으로 가금육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시아 중 인도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면서 양계업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변수로 다가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우리도 이미 경험을 하였고,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새 이동철이 다가오면서 우리로서는 더욱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 없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는 전세계 43개국에서 4,77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시아가 16개국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질병은 단지 질병으로써만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양계산업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금년에 유럽에서 발생되었던 HPAI로 인해 종계를 유럽지역에 의존하는 업체들이 수입금지에 묶이면서 종계수급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HPAI로 양계산물 수급에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하는 등 장기적으로 볼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AI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금년에는 애완용 조류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면서 보다 강도 높은 검역과 방역활동에 들어갔다. 최근에는 인간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변이된 H5N1이 유입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되며, 정부는 물론 본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AI관련 업무에 관심을 갖고 농가에서는 방역활동 등 AI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곡물 재고 문제 없는가?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대부분의 사료원료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곡물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오일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제로 옥수수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생산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사료곡물 수급에 차질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고 있다. 또한 중국은 오는 2007년부터 옥수수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미농무성(USDA)은 전망하고 있어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로써는 더욱 신경이 쓰인다.

미국의 에탄올 생산량은 2003년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생산량을 보면 지난해 4,060만톤이 생산되었고, 금년에는 4,572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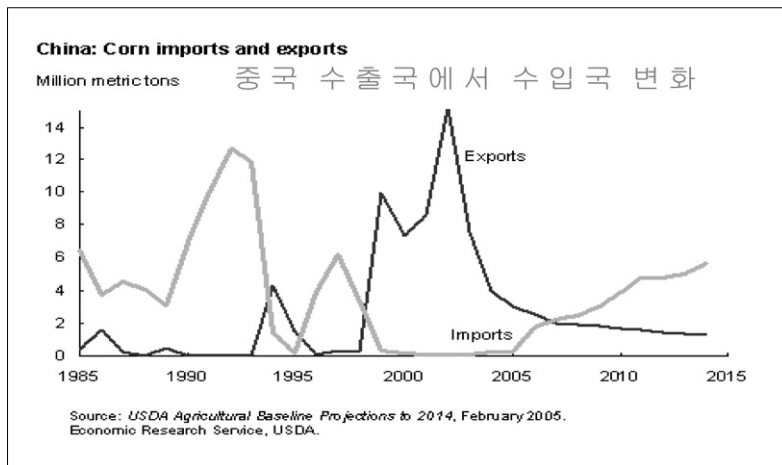
하지만 전세계의 옥수수 시장을 좌우하고 있는 미국의 옥수수 재고량이 5,300만톤 가까이 있기 때



문에 기상이변 등 변수가 생기지 않을 경우 전세계 곡물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사료가격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03년 말부터는 보통 톤당 34달러에 거래되던 선박가격이 중국의 산업화

로 인해 70달러까지 급상승하면서 국내 사료가격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들면서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근 2년간 영향을 주었다. 이 같은 일들은 항상 예의 주시하며 업을 영위해야 할 것이다.



5. 한미 FTA 등 무역의 변화

현재 미국과의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제주도에서 제4차 협상이 진행된 바 있다. 지난 1997년 7월 국내에 모든 양계산물에 수입개방 된 이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였고,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기 전인 2002년에는 97,327톤으로 국내 생산량의 27%까지 육박하였다. 2003년 AI발생으로 다소 주춤했던 수입이 수입선 변화를 일으키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AI로 수입이 금지되었던 미국에서 지난해 다시 수입이 재개되면서 2005년에 52,483톤이 수입되면서 과거수준을 되찾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닭고기 생산이 가장 많은 나라이며, 계란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 최대의 양계무역 국가이다. 미국의 10대 수출농산물중에 닭고기가 포함될 정도로 닭고기 수출은 전 세계적인 수출 주력품목이다.

만약 닭고기가 현행 20%로 되어 있는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경우 미국산 닭고기 수입가격이 16.7%나 하락하면서 국내 내수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닭고기를 민감품목에 포함시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계란의 경우에도 운송비와 수송기간 등의 부담과 93%가 백색란으로 유통되는 미국의 계란유통형태로 볼 때 원란수입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미국의 산지가격이 30~80원으로 차이가 크고, 포장기술의 발달, 가공란의 수출 움직임 등을 볼 때 오히려 피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예상



이 나오면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닭고기 수출은 연간 약 250만톤으로 전체 생산량의 14%정도에 해당한다.

6. 동물복지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

언제부터인가 인간들은 동물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2년에 케이지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등에서도 동물애호가들의 활동이 확대되면서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991년 동물보호법이 국내에 처음 제정되면서 애완용을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뜻의 반려(伴侶) 동물로 규정지으면서 향후 양계산물까지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금년 초 서울의 한 닭고기 매장에서 '병아리를 고문하지 말자'라는 피켓을 들고 국제동물보호단체에서 시위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동물복지에 대한 시선이 국내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제동물보호 단체에서 금년 초 서울에서 '병아리를 고문하지 말자'라는 피켓을 들고 케이지 안에서 동물보호 운동을 펼친 바 있다.

7. 맺음말

65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에는 120억수의 닭들이 자라고 있다. 인간들의 단백질원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란과 닭고기의 인기는 전세계의 소비량 증가가 보여주듯이 날로 치솟고 있다. 이제는 백색육(화이트 미트)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고, 계란의 경우에도 콜레스테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바뀌어가면서 보다 친근하게 소비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세계는 무역의 다변화속에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장기적으로 볼 때 아시아 지역의 인구변화가 생산과 소비는 물론 무역의 변화에 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무역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닭고기 및 계란 수입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는 여건에 놓이게 되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제경쟁력 향상은 물론 안전하고 깨끗한 양계산물 생산에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 양계산물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가능할 수도 있는 수출 틈새시장을 공격한다며 충분히 수출도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변화되는 세계화에 발맞추어 준비해가는 국내 양계산업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